

2021년 8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해당사항 없음'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4:00-04:30 (재방송 매주 월 00:25~00:55)

o 방송현황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창숙	8/1	[뉴스오늘] '골든위크' 맞은 野대선관...'룰의 전쟁' 조기 점화하나 [뉴스워치] 정세균-이광재 "7월 5일까지 단일화"...윤석열 내일 출사표 [뉴스리뷰] 쿠팡 노동자 잇따른 폭로...“안전은 뒷전이였다”	
김창숙	8/8	[뉴스특보] 정부, 남북 '대화 모멘텀' 살리기...대미 외교 집중할 듯 [뉴스1번지] 김여정 담화에 곤혹스런 정부...남북대화 재개 '난항'	
김홍태	8/15	[뉴스1번지]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산재 첫 인정 [뉴스특보] 백신 10부제 예약	
이재원	8/22	[뉴스특보] 델타변이·일상감염 확산세...4차 유행 정점은? [뉴스특보] 한 달 앞당긴 2차 접종률 70%...백신수급·예약률이 관건	
안호림	8/29	[뉴스특보] 이준석 "갈수록 태산" vs 윤석열 측 "사실무근" [뉴스특보] 토론회 이어 이번엔 녹취록...尹·李 갈등 '일촉즉발'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이재원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교수	2016. 08. 23	-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활동	안호림	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2021. 01. 26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2021년 8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1 8/1(일)	김창숙	7월 26일 오후 5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부 단체전에서 금메달 2연패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오진혁, 김우진, 김제덕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이 결승에서 대만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지난 리우올림픽에 이은 이 종목 2연패이자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나온 역대 여섯 번째 금메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혼성전과 여자단체전에 이은 도쿄올림픽 양궁 세 번째 금메달이고, 김제덕은 여자대표팀 안산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대표팀은 8강전에서 인도를 여유 있게 따돌렸지만, 일본팀과의 준결승에서는 연장전이라 할 수 있는 슛오프까지 갔지만 23점 동점을 기록해, 결국 우리 대표팀 김제덕의 10점은 중심에서 33cm, 일본팀 가와타의 화살은 5.7cm 떨어져 있어 2.4cm 차이로 결승 티켓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결승에서는 대만에 여유 있게 6대0으로 승리했다고 전하며, 우리 양궁 대표팀은 남은 여자 개인전과 남자 개인전에서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7월 25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금메달을 기대했던 남자 68kg급의 이대훈과 여자 57kg급의 이아름 두 선수 모두 16강전에서 탈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대훈은 우즈베키스탄의 울루그벡 라시토프에 연장전 끝에 졌는데, 먼저 두 점을 뽑는 선수가 승리하는 골든 포인트제 연장에서 시작한 지 17초 만에 상대 원발에 몸통 공격을 허용해 19대 21로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대훈은 세계선수권 3차례 우승, 아시안게임 3연속 우승 등 태권도에서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으나, 런던올림픽 은메달, 리우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에서는 아직 금메달이 없어 이번 대회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식발 투혼을 한 유도 강유정, 결승전에서 지고도 상대 선수의 손을 들어준 유도 조구함, 상대 선수의 발에 걸려 넘어졌지만 함께 결승선을 통과한 육상 선수, 4위에 그쳤지만 넘치는 투지를 보여준 육상 높이뛰기 이상혁, 팔없는 장애에도 선전을 펼친 폴란드 탁구 선수 등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고난 훈련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리포트로 제작해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하루의 경기를 종합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메달을 딴 선수 위주로 만들고, 선수들의 숨은 노력 등 이야기 거리는 별도의 박스 기사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가장 큰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아름도 16강전에서 대만의 로자링에게 연장 승부 끝에 18대 20으로 저 첫 올림픽 출전을 쓸쓸하게 마감했다고 전하며, 태권도에서 아직까지 결승 진출자가 없어 종주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개막한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합뉴스TV도 한 주 동안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전달했는데요.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성과주의 보도 행태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성과까지 얻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성적이 비록 좋지 못한 경우라도 부정적인 네이밍보다는 격려와 노고를 치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비인기종목이나 메달 가능성이 낮은 종목들에 대한 뉴스들을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연합뉴스TV는 지나친 인기종목 위주의 보도행태를 지양하고 여러 종목의 뉴스들을 다양하게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8/8(일)	김창숙	8월 2일 <뉴스1번지>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남측에 큰 용단을 촉구하며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남북 연락 채널 복원 이후 조속한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한미훈련 규모 축소는 물론 연기까지 고민하던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라고 전하며,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한미훈련이 최소화되더라도 김여정 하명에 따른 훈련 조정이라는 악연의 비판과 북한의 비난이 동시에 쏟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자 남측을 맹비난한 바 있다고 전하며,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 통신선 복원은 물리적 연결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라며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남북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묵묵부답 상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해당 리포트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북한의 요구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든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데일리 리포트를 맡는 일선 취재기자로서는 한미연합 훈련 연기 여부의 적절성과 남북관계 전망을 전문가적 식견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대담코너를 통해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적하신대로 정치적 주장이나 근거가 빈약한 설 등은 관련 리포트 제작에 있어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리며, 현재 분위기에선 남북 대화가 재개된다라고 한미훈련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한미훈련 중단 요구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보도의 경우, 하나의 사건에 과장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전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보도의 경우에도 남북연락채널 복원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인 보도들이 나오다가 김영정 부부장의 담화문 발표로 며칠 만에 전망들이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언론이 정치권의 전망과 갑을논박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나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과대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논쟁을 따라가기보다는 남북관계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고 분석해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로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충분한 해설을 제공하고, 근거가 빈약한 일각의 전망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언론의 비판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 8/15(일)	김홍태	지난 7일 오전8시 뉴스특보에서는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전하면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4.1원 오른 리터당 1,645.1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1,660원 이후로 가장 비싼 가격인데요, 다만 6주 연속 매주 10원 이상씩 오르던 휘발윳값 주간 상승폭은 4.1원으로 둔화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3.6원 오른 리터당 1,440.4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1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	거시경제지표와 관련된 보도는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고 실제 그 영향을 피부로 느끼는 것임에도 익숙지 않은 표현과 추상적 용어로 인해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기사들은 단신으로 최장 40초 이내란 요건에 맞춰 기사를 작성하다보니 누구나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데 공감합니다. 수시로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심층 리포트들을 제작해 시청자 이해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 전했습니다. KDI는 경제동향 8월호에서 7월 들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방역 조치도 강화됐으며 이같이 진단했는데, 다만 "수출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6월 중 내수도 회복세를 보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경기 회복 평가는 지난 5월부터 넉 달째 이어졌지만,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탓에 두 달 연속 등장했다고 합니다. 당해 보도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와 하반기 기상 영향으로 인해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로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 2%를 맞추기 힘들다는 관측도 전하고 있는데요,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 2%와 매우 상충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간단한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정부나 관계기관도 조금씩 금리 인상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위 보도내용보다 조금은 다각도에서 분석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1 8/22(일)	이재원	8월16일 오후 6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놓고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LA 시의 회가 식당, 술집 등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자, 우파 시위대가 이에 반대해 거리로 나섰다, 좌파 시위대가 맞불 집회를 열면서 유혈 충돌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성조기 등을 든 우파 시위대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의료 폭정"이라고 주장했고, 좌파 시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외국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관련 취재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단순히 전달하기보다는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위대는 "파시스트"라며 반박하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1명이 칼에 찔리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을 기존 면역 저하자에서 노인, 요양원 환자, 의료계 종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앞으로 몇 주 이내 하루 신규 환자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자 '부스터샷'이라는 강수를 꺼냈습니다. 해당 보도는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는 미국 사회 분열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화약고로 재부상했다며, 흑인의 백신 두려움을 언급한 미시시피 잭슨 시의원의 발언과, 백신 거부자를 향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우려에 앞서 공동의 적인 코로나19에 대처해야 한다"는 미국 전염병연구소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이 향후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뉴스였습니다. 현재 18세부터 49세 백신 접종 예약률이 정부의 목표인 70% 보다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기 보다, 깊이있는 분석과 정책 제시가 가능하도록 연합뉴스TV가 심층 보도를 기획해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p>	
<p>2021 8/29(일)</p>	<p>안호림</p>	<p>지난 15일 광복절에는 일제를 상대로 한 독립투쟁사의 기념비적 사건인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이 일에 대해 8월 15일에서 17일간 집중 보도했습니다. 15일 오후 11시 <뉴스특보>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광복 76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인 15일 고국에 돌아온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최고등급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고, 이틀간 국민 추모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의장대에 의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운구되는 장면과 문 대통령이 이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p>	<p>지적하신 대로, 고(故) 홍범도 장군 유해의 고국 송환 건이 올해 8.15 광복절의 의미를 크게 고양시킨 기념비적 이벤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도전문채널로서 중편 채널과 차별화된 의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이 있을 경우 보다 깊이 있고 심층적인 내용을 발굴해 다뤄 줄 수 있도록, 보도국 차원에서 총괄적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p>

		<p>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 정규군을 대파했고, 이후 연해주로 피신했다가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말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작년 봉오동 전투 100주년에 맞추어 봉화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1년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8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이날 거행된 홍범도 장군의 안장식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간략하게 안장식의 진행을 스케치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독립유공자 제 3묘역에 안장됐었는데, 여기에는 청산리 전투의 이화일, 박승길, 김운서 지사 등이 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기사는 문 대통령 연설의 한 대목을 보여주면서 문 대통령이 연설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관 위에는 대한민국의 흉과 장군이 묻혀있던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디의 흙이 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은 모든 매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보도한, 특히 광복절이라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애국선열들을 기리는 날을 맞아 집중 보도된 사안입니다. 연합뉴스TV도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 채널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지상파 뉴스, 종편채널의 뉴스들과의 차별성이 눈에 띄이지 않습니다.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라면 단순히 비슷한 뉴스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관성적인 보도보다는 깊이 있고, 다른 채널에서는 접하기 힘든 심층적인 내용을 발굴해 다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p>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시청자평가원(21. 08. 01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0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한 주는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 후보들을 둘러싼 당 내 갈등에 대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7월 25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회담으로 입당 문제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는 듯했으나 지역구를 맡은 당협위원장 일부가 입당 전인 윤 전 총장 캠프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 내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을 둘러싸고 지역주의 논란이 쉽

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지난 7월 26일 오전 5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앵커는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거센 네거티브 공방이, 잊힌 듯했던 지역주의 망령을 되살려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17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논쟁에 이어 영호남 지역주의 까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사건의 발단이 이재명 후보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라고 짚으며, 한반도 5천년 역사에서 백제, 즉 호남이 전체를 통합한 예가 없으며, 이낙연 후보가 이긴다면 역사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 측은 경북 안동 출신인 이재명 후보가 호남 출신 후보의 확장성을 문제 삼으려 한다며 반박했고, 이낙연 후보도 직접 “영남 역사별 발언을 잇는 실연”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호남 출신인 정세균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며, 후보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지역주의 프레임에 가두려는 악마의 편집이라며 인터뷰 전문과 녹취록을 공개하고, 광주를 찾아 호남 정심이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했다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차별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두 후보의 논쟁으로 인해 김대중·노무현 정심은 물론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는 두 전직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7월 26일 오전 4시 <뉴스특보>에서는 국민의힘 입당 문제로 갈등을 빚은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가 치맥 회동을 가졌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동소이한 서로의 뜻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 대표가 윤 전 총장을 향한 입당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최근 행보를 비판하는 등 갈등 속에서 전격적으로 마주 앉았지만, 1시간을 훌쩍 넘긴 만남 이후 밝은 얼굴로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동을 ‘대동소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며 이번 회동으로 불확실성이 절반 이상 해소됐다고 밝혔고,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하며 서로가 신경전을 끝내고 갈등을 봉합했다는 점을 한껏 부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월 26일 <뉴스1번지>에서는 갈수록 거세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네거티브 공방을 두고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각 캠프 총괄본부장을 불러 모아 공방 자체를 축소하며, 진흙탕 싸움이 심해지면 후보에게 일종의 페널티까지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백제, 호남이 주체가 돼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다’는 이재명 지사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호남불가론으로 받아들인 이낙연 전 대표가 라디오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냐”고 말해 비판을 자중하란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이 7월 25일 국민의힘 인사들을 대거 영입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윤 전 총장이 7월 25일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을 하면서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화기애애했던 저녁 자리와 달리 국민의힘에선 7월 26일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인사들 중 4명이 지역구를 맡은 당협위원장인데, 당 밖 후보 캠프에 합류하는 건 해당 행위, 일종의 배임 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가 당 밖의 주자를 돕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징계를 경고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도 언론을 통해 비겁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으며, 하태경 의원도 4명이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큰 틀에서 같은 편인만큼 과도하던 반론이 최고위에서도 나오는 등 당이 친윤과 반윤으로 나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구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거티브 전략은 상대의 약점이나 비리를 주로 언급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후보의 자질 검증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정책과 비전을 놓고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과 비리를 공격하고 방어하는데 중점을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선거이슈를 축소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이 정치권 공방만 그대로 따라가며 보도를 하게 되면 제한된 이슈만을 보도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언론이 오히려 의제설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치권에서 언급되지 않은 중요한 이슈들을 발굴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후보들

의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 비전의 차별성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7월 26일 오후 5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부 단체전에서 금메달 2연패를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오진혁, 김우진, 김제덕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이 결승에서 대만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지난 리우올림픽에 이은 이 종목 2연패이자 양궁 남자부 단체전에서 나온 역대 여섯 번째 금메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혼성전과 여자단체전에 이은 도쿄올림픽 양궁 세 번째 금메달이고, 김제덕은 여자대표팀 안산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대표팀은 8강전에서 인도를 여유 있게 따돌렸지만, 일본팀과의 준결승에서는 연장전이라 할 수 있는 슛오프까지 갔지만 28점 동점을 기록해, 결국 우리 대표팀 김제덕의 10점은 중심에서 3.3cm, 일본팀 가와타의 화살은 5.7cm 떨어져 있어 2.4cm 차이로 결승 티켓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결승에서는 대만에 여유 있게 6대0으로 승리했다고 전하며, 우리 양궁 대표팀은 남은 여자 개인전과 남자 개인전에서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7월 25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금메달을 기대했던 남자 68kg급의 이대훈과 여자 57kg급의 이아름 두 선수 모두 16강전에서 탈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대훈은 우즈베키스탄의 울루그벡 라시토프에 연장전 끝에 졌는데, 먼저 두 점을 뽑는 선수가 승리하는 골든 포인츠제 연장에서 시작한 지 17초 만에 상대 원발에 몸통 공격을 허용해 19대 21로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대훈은 세계선수권 3차례 우승, 아시안게임 3연속 우승 등 태권도에서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으나, 런던올림픽 은메달, 리우올림픽 동메달 등 올림픽에서는 아직 금메달이 없어 이번 대회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가장 큰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아름도 16강전에서 대만의 로자링에게 연장 승부 끝에 18대 20으로 저 첫 올림픽 출전을 씁쓸하게 마감했다고 전하며, 태권도에서 아직까지 결승 진출자가 없어 중국과의 자존심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개막한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합뉴스TV도 한 주 동안 도쿄올림픽 관련 소식을 비중있게 전달했는데요.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성과주의 보도 행태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성과까지 얻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성적이 비록 좋지 못한 경우라도 부정적인 네이밍보다는 격려와 노고를 치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비인기종목이나 메달 가능성이 낮은 종목들에 대한 뉴스들을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연합뉴스TV는 지나친 인기종목 위주의 보도행태를 지양하고 여러 종목의 뉴스들을 다양하게 전달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5일 오후 2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최근 무더운 날씨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에어컨 화재 발생과 온열질환자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8월에 발생한 화재현장 모습을 보여주며, 화재 원인이 에어컨 실외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3년간 에어컨 화재 관련 데이터를 보여주며 8월에 에어컨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에어컨 화재는 주로 실외기에서 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 자체가 늦어 대처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화재의 원인이 과열이나 과부하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도 전했습니다. 온열질환 관련 구급출동은 올해 들어 모두 316건으로,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하며, 특히 이번 달에만 220건 넘는 온열질환자 구급출동이 있었는데 작년보다 3배 많은 수준이라고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술이나 카페인, 탄산이 든 음료를 과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에어컨 화재나 온열질환의 위험성을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하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보다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연이은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많은 시기에 적절한 보도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에어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시청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구체적으로 언급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21. 08. 08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06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7월 27일, 단절됐던 남북연락채널이 413일 만에 복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넘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8월 1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 발표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했고,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모처럼 남북대화 국면을 맞았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인데요, 8월 1일 오후 5시 <뉴스특보>에서는 어렵게 되살아난 남북 대화의 모멘텀 살리기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 특히 대미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연락통신선 복원이 단절됐던 소통의 재개를 뜻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양 정상 수차례 친서 교환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는 부분이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모처럼 찾아온 훈풍에 정부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대면 만남이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비대면 화상 회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준비에 곧바로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실무회담부터 시작해 고위급회담, 나아가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빠르게 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주 아세안 국제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참여국들의 지지를 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정부의 관계 진전을 위한 단계적 시나리오도 결국 미국에 대한 설득 작업 없이는 지속성을 담보할 순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도 북한의 최대 반발 포인트인 만큼, 정부로서 부담 요소로 꼽힌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도 당장의 정상회담 개최 보도를 부인하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우선은 남북 대화 분위기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미 외교 노력에 한층 더 집중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최영준 통일부 차관이 통신선 복원 이후 우리의 남북 관계 구상을 설명하고, 미국과 대북 정책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월 2일 <뉴스1번지>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남측에 큰 용단을 촉구하며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남북 연락 채널 복원 이후 조속한 대화 국면 조성을 위해 한미훈련 규모 축소는 물론 연기까지 고민하던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라고 전하며,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한미훈련이 최소화되더라도 김여정 하명에 따른 훈련 조정이라는 아권의 비판과 북한의 비난이 동시에 쏟아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자 남측을 맹비난한 바 있다고 전하며, 김여정 부부장은 남북 통신선 복원은 물리적 연결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달지 말라며 대화 재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남북 영사회 의시스템 구축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묵묵부답 상태라며, 현재 분위기에선 남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미훈련이 끝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한미훈련 중단 요구가 향후 남북관계에서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된 보도의 경우, 하나의 사건에 과장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전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보도의 경우에도 남북연락채널 복원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인 보도들이 나오다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 발표로 며칠 만에 전망들이 급선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언론이 정치권의 전망과 갑을논박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나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각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성과를 과대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의 논쟁을 따라가기보다는 남북관계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고 분석해줄

수 있는 사회적 장치로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충분한 해설을 제공하고, 근거가 빈약한 일각의 전망들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언론의 비판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7월 29일 오후 9시 <뉴스특보>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벽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7월 28일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종교서점 외벽에 그려진 한 벽화가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이 종교서점 건물주 A씨가 직접 의뢰해 그린 이 벽화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즐리벽화가 세간에 알려지자 윤 전 총장의 지지자와 보수 유투버들은 차량으로 벽화 앞을 막아섰고, 반대로 이곳을 기념 삼아 찾는 이들이 뒤엉키며 일대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윤 전 총장은 벽화와 관련해 가족문제를 넘어 여성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건의 배후를 주목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벽화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 즐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철거할 생각이 없다”며 “정치적 의도도 없고 배후도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권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것은 저질 비방, 정치 폭력이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인격 살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고, 하태경 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저질스러운 이야기로 공격당할 때, 여야 가릴 것 없이 방어해 주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권에서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처음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페이스북에 “누굴 지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인권침해”고 지적하며 “성숙한 민주주의, 품격있는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해당 그림을 자진 철거해주시길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7월 30일 <뉴스1번지>에서는 윤 전 총장의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 논란과 함께 양궁 안산 선수의 헤어스타일 등을 놓고 페미니스트 논쟁도 벌어지자, 여성가족부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권침해는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호석 의원은 한 인간이 ‘여성성’을 도구삼아 공격한 폭력이라고 비판하면서, 윤 의원은 침묵을 이어오던 여성가족부 등을 겨냥해 이들이 추구한다는 가치는 어떤 정치세력과 관련된 일인지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인격 살해이고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된다며 자제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여자 양궁 안산 선수의 숏컷 헤어스타일 등을 놓고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스트 논쟁까지 불거지자, 여가부가 “최근 스포츠계와 정치 영역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짙한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가운데 부처 폐지론까지 일고 있는 여가부가 정치권에서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안산 선수를 둘러싼 페미 논란과 윤 전 총장의 부인을 비방하는 벽화 문제로 여성혐오와 젠더 문제가 사회적 이슈였는데요. 다소 자극적인 소재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었는데, 연합뉴스TV 보도는 전체적으로 사실 중심의 보도로 담백하게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들을 둘러싸고, 젠더갈등 문제, 여성혐오 문제, 인권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담론들이 생성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에서 안산 선수 사건을 사이며 폭력으로 정의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혐오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나 관련 부처들의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8월 2일 오전 7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의 고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한 기사는 검사자들을 안내하는 공무원들의 땀방울 맺힌 모습과 몇 시간째 벗지 못해 땀과 습기가 가득한 장갑을 보여줬습니다. 그늘 안이고 선풍기도 틀었지만 검사소 안으로 밀려드는 더위와 습기에는 속수무책이라고 설명하며, 검사자

들과 대면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나 의료진들은 더 두꺼운 방호복에 헤어캡, 얼굴 가리개 등으로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는 의료진들이 착용하고 있는 방호복을 1시간 정도 직접 착용해 본 후, 온 몸이 땀이 차고 어지러움증까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냉방 시설이 설치된 컨테이너 안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도 방수가 된 방호복 때문에 바람이 통하지 않아 더위에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의료진들의 희생에 고마움을 전하는 시민인터뷰를 전달했고, 기자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겠다는 사명감 아래,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열악한 의료환경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의료진의 고충을 언급한 후 의료진의 송고한 희생정신이나 시민들의 감사와 같은 감성적인 언급들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은 문제를 개선시키는 데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료현장도 엄연한 노동현장입니다. 노동자에게 적절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현장에 대한 냉철한 비판과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의료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1. 08. 15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07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첫 사례 내용과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서 먹통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10부제를 시행한다는 코로나19 뉴스특보를 보도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관련 자원봉사자들의 훈훈한 활동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로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 2%를 맞추기 힘들다는 관측내용과 한국개발연구원 KDI 평가도 간단히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뉴스1번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첫 사례인데요. 경기도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접종 이후 19일 만에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찾아왔는데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란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의 남편이 아내가 우선접종 대상자라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을 올려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당시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A씨의 증상과 백신과의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A씨는 산업재해 인정을 받게 됐는데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돼 사업장의 적극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했고,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등을 들었는데, 의학적 인과성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A씨의 산재 인정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유증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첫 사례인데요, 이에 따라 의료진을 포함한 우선접종 대상자 등의 백신 후유증 산재 인정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 5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전하면서, 일반 청·장년층의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되면, 그동안 반복됐던 먹통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10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특보, <백신 10부제 예약>에서는, 만 18세에서 49세 청·장년층의 접종 사전예약이 지난 9일부터 시작됐다면, 1972년생에서 2003년생까지의 1천577만 명

이 그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는 10부제에 따라 예약 날짜를 잘 확인해야 한다면,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끝자리와 같은 날짜에 예약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 끝자리가 9로 끝나는 경우라면 9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예약을 하는 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예약 대란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대리 예약과 여러 기기에 동시 접속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또 본인 인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 외에 공동·공인인증서, 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으로도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10부제에 따라 예약을 하지 못했다면 만 36~49세는 19일, 18~35세는 20일, 18~49세는 21일에 추가로 예약할 수 있고, 22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는 모든 대상자가 예약을 하거나 기존 예약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뉴스1번지에서는 의학적 인과성의 부정과 산재 인과성의 인정을 전하고 있는데, 이 인과성의 차이에 대하여 간단한 언급이 있었으면 보도의 이해가 쉬었을 것입니다. 보도할 부분을 간결하게 전달한 면은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시청자들은 왜 그렇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산재 인정의 간단한 요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간략히 개념 정도를 언급했음 더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 6일 오후5시 뉴스특보에서는, 접종 사전예약에서 먹통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10부제를 시행한다는 것을 전했는데, 접종 예약을 해본 국민들은 다들 먹통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예약의 방식을 변경하였고 이러한 변경에 대하여 그래픽과 표를 통해 쉽게 설명한 것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접종 예약 시 먹통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국민들의 불만은 매우 커질텐데, 도표 설명과 함께 앞으로는 절대 먹통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의 멘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 7일 오전 9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된 이후, 취약계층은 끼니 걱정이 더 커졌는데, '복지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해 뉴스에서 정다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는데, 점심시간, 복지회관에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비었던 손에는 목직 비닐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 등이 문을 닫자, 지자체가 음식을 지원하고 있는건데, 경기 고양시 거주 하선수님은 혼자 살다 보니까 해먹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원대상은 1천 가구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봉사자들이 배달에 나서기도 했는데, 김현주 자원봉사자는 코로나19로 직장 잠깐 쉬면서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되게 즐거워하시고,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주는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반찬은 모두 동네 가게에서 공수되는데, 맛과 위생 등을 따져 선정된 식당들은 반가운 마음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리 반찬가게 주인은 좋은 일을 같이했으면 했고, 어려운 가정을 돕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강점을 살린다고 했으며, 이재준 고양시장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도 도움이 되고 대상자들은 하루하루 직접 만든 제품을 맛볼 수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전했는데, 코로나19로 넓어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나 지자체의 배려가 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의 보도는 이러한 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기자가 직접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하여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강조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어떠한 지원

을 하고 있는지도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비쿠폰,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등을 하고 있는지, 기타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전달했다면 좀 더 풍부한 보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난 7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물가 안정 목표치인 2%를 넘어선 지는 벌써 넉 달째가 되었고,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물가 상승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을 보도했습니다. 요즘 장을 볼 때면, 값이 오르지 않은 품목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한지이 기자는 라면 가격 인상이 하반기 물가 인상의 신호탄이었으며, 팜유, 소맥 등 국제 원자재 값 인상 요인이 가공식품에까지 파고들면서 업체들의 도미노 인상을 불러왔다고 전했는데요, 농심 관계자는 최근 팜유나 밀가루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인건비, 물류비, 판매관리비 등 경영비용 상승 등 원가 압박이 많이 누적되어 왔다고 합니다. 정부가 가격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계란값은 여전히 7,000원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밥상물가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총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요, 계란의 경우 수입을 늘려 절반 이상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명절 소비가 많은 소고기, 돼지고기도 공급량을 각각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16대 성수품 공급도 예년보다 앞당길 방침이며, 농축산물 물가관리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황 점검과 출하 시기 조절 등 사전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기상 영향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요인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추가 상승 리스크가 상존하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 2%를 맞추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전하면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4.1원 오른 리터당 1,645.1원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2018년 11월 1,660원 이후로 가장 비싼 가격인데요, 다만 6주 연속 매주 10원 이상씩 오르던 휘발유값 주간 상승폭은 4.1원으로 둔화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6원 오른 리터당 1,440.4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1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현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전했습니다.

KDI는 경제동향 8월호에서 7월 들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방역 조치도 강화됐으며 이 같이 진단했는데요, 다만 "수출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6월 중 내수도 회복세를 보인다"고도 평가했습니다. 경기 회복 평가는 지난 5월부터 넉 달째 이어졌지만,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탓에 두 달 연속 등장했다고 합니다. 당해 보도에서는 변이 바이러스와 하반기 기상 영향으로 인해 농축수산물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리스크로 정부의 물가 안정 목표 2%를 맞추기 힘들다는 관측도 전하고 있는데요,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는 보도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물가 안정 목표 2%와 매우 상충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간단한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정부나 관계기관도 조금씩 금리 인상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하여 위 보도내용보다 조금은 다각도에서 분석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21. 08. 2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0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코로나19 뉴스특보를 통해 델타변이와 일상감염의 확산 등으로 4차 유행을 맞은 코로나19 전역 상황과 방역 방법 등을 전했으며,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 뒷 이야기를 현지에서 취재한 기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지난 8월12일 오전 10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87명 발생한 다음날인 12일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김민하 시사평론가를 스튜디오에 초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현재의 방역조치로는 확산세 차단이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할 방침인 가운데 방역당국의 조치를 분석했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휴가철의 영향을 언급했습니다. 김 평론가는 "휴가철이 중간에 끼어서 이동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세부적으로 도심 다중이용시설은 줄어드나 레저 스포츠 휴양은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거리두기 조치에 확진자가 줄었으나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어도 이동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지는데 대해 밀접 접촉 정의를 바꿔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다뤘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의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도 일정 기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김 경우 교수는 밀접접촉 아닌 일상 접촉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10명의 밀접접촉 확진자를 잡기 위해 2100명을 격리시켜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나누지 말고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델타 변이는 밀접접촉 아닌 일상 접촉으로도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출을 줄이고 마스크를 코와 입을 최대한 밀착해서 잘 착용하시고 밀폐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를 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고 일상 접촉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뉴스특보]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 한계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추가 조치를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한 방역당국의 움직임도 전했는데요. 방역당국의 새로운 방안의 방향성에 관해 김 교수의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김 교수는 "K방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너무 보수적이어서 외국을 따라가서 조금 느슨하게 하자"며 "외국에서 따라할 건 따라하되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필요하지만 피해를 보는 분들은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해야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또 오래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의 조정 가능성, 모더나 수급 현황으로 2차 접종 시기가 4주에서 6주로 늘어난 데 대해 백신효과에 지장이 없는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모더나 접종자의 혈전 발생 사망 사건 등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궁금해하는 생활밀착형 소식도 발빠르게 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증가에 관해 증가 이유, 의료계 의견, 정부 정책의 방향성 제시 등 다각도로 분석과 해석이 전달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용한 뉴스였습니다. 대담 도중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코로나19 위증증 환자수' 등 그래픽이 제시되어 시각 정보가 주어진 점은 도움이 되었지만,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추이'는 숫자의 크기가 작아서 조정이 필요해보였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10월까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전 국민의 70%에게 완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실효성 여부를 검토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첫째,

남은 기간 동안 접종자수가 몇 명이어야 2차 접종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계산했습니다. 16일 0시기준 1차 접종률 46.3% 2차 접종률 19%를 기록한 상황이기때, 10월 2차 접종률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두 달 반 동안 2,600만 명 이상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백신 수급이 가능한지 짚어주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백신 수급이라며, 미국 정부의 안센 백신 40만 회분이 들어왔지만, 현재 물량으로 안정적 수급을 하기엔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백신 접종 예약률이 저조한 것도 문제라며, 18~49세 백신 접종 예약률이 60%에 그쳐 정부의 목표 예약률 70%를 밑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추석 연휴 전까지 국민 70% 1차 접종, 2차 접종은 11월이 목표였는데 2차 접종 70% 10월 목표로 바뀐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보도였습니다. 당초 11월로 제시한 시점을 한 달 정도 앞당긴 것인데, 이 목표가 달성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기자의 취재로 전해 언론의 감시 기능을 발현해주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통계 자료의 그래픽 제시, 정부의 방안까지 전했습니다. 단순히 정부 발표를 전달만 하거나, 우려만 표시한 게 아니라 균형잡힌 보도를 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8월16일 오후 6시 코로나19 [뉴스특보]에서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놓고 찬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LA 시의회가 식당, 술집 등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자, 우파 시위대가 이에 반대해 거리로 나섰다, 좌파 시위대가 맞불 집회를 열면서 유혈 충돌로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성조기 등을 든 우파 시위대는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의료 폭정"이라고 주장했고, 좌파 시위대는 "파시스트"라며 반박하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1명이 칼에 찔리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백신 추가 접종, 부스터샷 대상을 기존 면역 저하자에서 노인, 요양원 환자, 의료계 종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 확산으로 앞으로 몇 주 이내 하루 신규 환자가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우려되자 '부스터샷'이라는 강수를 꺼냈습니다. 해당 보도는 마스크와 백신 의무화는 미국 사회 분열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화약고로 재부상했다며, 흑인의 백신 두려움을 언급한 미시시피 책선 시의원의 발언과, 백신 거부자를 향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우려에 앞서 공동의 적인 코로나19에 대처해야 한다"는 미국 전염병연구소장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미국의 현재 상황이 향후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이후의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뉴스였습니다. 현재 18세 부터49세 백신 접종 예약률이 정부의 목표인 70% 보다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순히 예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안하기 보다, 깊이있는 분석과 정책 제시가 가능하도록 연합뉴스TV가 심층 보도를 기획해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예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백신 접종 증명을 법적으로 강제할 것인지 여부와 이에 관한 여론의 추이를 심층적으로 보도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8월 11일 오후 6시 [뉴스특보]는 코로나19 시대 첫 올림픽이 폐막한 도쿄올림픽의 뒷이야기를 일본 현지에서 취재를 했던 기자를 스튜디오로 초대해 들어봤습니다. 기사는 8일 폐막 후 9일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수동감시자로 분류돼 스튜디오에 올 수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에 입성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는 뒷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두 차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도쿄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고 도쿄 도착 후 나라타 공항에서 까다로운 검역 절차를 통과하는 데만 3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미디어 숙소로 지정된 호텔에 도착해서도 도착일을 포함해 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했다고 설명

했습니다. 대회 기간 코로나19 검사는 타액을 이용해 거의 매일 진행됐고, 돌아올 때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고 일본 입국 전, 후로 전반적인 코로나19 관리 현황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전했습니다. 격리가 끝난 뒤에도 미디어를 위해 준비된 교통편만 이용해 취재를 다닐 수 있었다며, 도쿄 시민과 올림픽 관계자를 분리시키는 일명 '버블방역'을 소개했습니다.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도 미디어 버스를 이용해 1시간씩 걸려서 이동할 정도로 분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식사를 위해 숙소에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보고 후 15분 동안 편의점은 다녀올 수 있었기에 사실상 완벽한 '버블방역'은 불가능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연기된 1년 동안 조직위에서 고민 끝에 만들어낸 미디어 이동 방법인 건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육책인 만큼 취해진 불편함을 감수하는 모습이었고, 대회 조직위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도쿄의 날씨, 양궁 펜싱 등 주요 종목에 관한 관심, 여자배구 김연경 선수에 대한 응원과 관심, 도쿄 패럴림픽 소식 등을 전했습니다. 올림픽 뒷 이야기를 스포츠 뿐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상황까지 들을 수 있어서 보다 깊이있는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메달 현황이나 경기 분석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상황에서 열린 올림픽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어서 확장된 정보를 추구하는 시청자들에게 만족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21. 08. 2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50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최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내분이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7일 오후 9시 뉴스특보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과의 갈등이 확대일로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에 "만약 사실이라면 '갈수록 태산'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른 주자들에게 보이콧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오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표측은 "불참 중용을 받은 캠프는 있는데 연락을 한 캠프는 없는 상황"이라며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 당 대표와 지지율 1위 대선주자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지자 경선 흥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또 다른 국민의 힘 대선예비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근황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8월 16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녹취록 유출 의혹으로 이 대표와 윤 전 총장간의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 전 대표가 윤 전 총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간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부터 먼저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돼야 한다"라고 한 발언이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석하며, 캠프 내부에서는 더 격화된 반응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녹취록이나 녹취파일은 없으며,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갈등의 원인이 된 대선주자 토론회를 정경발표회 형식으로 강행 할 생각인데, 반대가 만만치 않아 최고위에서 충돌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유승민 전 의원, 장성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8월 17일 오후 9시 뉴스특보에서는 국민의힘 최고위 결과를 전했습니다. 기사는 국민의힘이 진통 끝에 토론회 대신 '비전발표회'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토론회를 둘러싼 내용은 일단락 된 듯 보이지만 다

른 이슈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기사는 최고위의 분위기와 회의에서 오간 발언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최고위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격한 설전이 벌어졌다고 전했는데요. 격론 끝에 토론회 대신 '비전발표회'를 하고, 횡수도 두번에서 한번으로 줄이는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어 원회용 전 제주지사의 주장으로 인해 불거진 또 다른 의혹과 이에 따른 갈등에 대해서도 보도했습니다. 원 전 지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윤석열 후보는 곧 정리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기사는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주어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원 전 지사에 대한 역공도 폄파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박대출 최재형 캠프 전략총괄본부장의 발언을 통해 이러한 갈등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기사는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측의 근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들은 한국 정치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정한 인물이나 행사에 대한 사실을 주로 전하는 형태의 기사들입니다.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특히 특정 대선주자를 지지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큰 관심이 될 만한 기사거리입니다. 연합뉴스TV도 이에 대해서는 연일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가 위와 같이 사실을 나열하는 기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한 맥락 연결이 되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기사가 아쉽습니다. 위 기사들은 기사의 주내용이 되는 갈등 사안을 전하면서 동시에 다른 야당 대선주자들의 근황을 같이 전하고 있는데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시도인지, 관성적인 보도태도인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내용 없는 동정보도가 얼마나 큰 뉴스가치를 가졌는지는 의문입니다. 나아가 기사의 구성이 산만하게 느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모두의 예상을 넘어 불과 미군이 본격적인 철수를 시작한 3개월 만에 탈레반에게 항복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16일 오전 8시 [뉴스특보]에서는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정권 이양을 선언해 사실상 항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철수를 시작한 지 단 3개월만이라고 합니다.

기사는 탈레반이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을 원전 장악하고 본격적 권력 인수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외신을 인용해 아프간 정부가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은 향후 아프간 내 외국인과 각종 시설 운영 등에 대한 원칙을 밝혔는데요. 특히 여성 혼자서 집밖에 나가는 것을 허용하고, 히잡을 쓸 경우 일차리와 학업을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3시 뉴스특보에서는 이희수 성공회대 이슬람문화연구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프가니스탄이 급속하게 몰락한 이유, 탈레반 정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응 전망 등에 대해 조망했습니다.

인터뷰 첫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탈레반이 수도 카불까지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이희수 교수는 이에 대해 정통성을 갖지 못하고, 국민의 지지나 심지어 미국의 인정조차 받지 못한 아프간 정부가 내부로부터 이미 붕괴된 상태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앵커는 두 번째로 아프간 정부의 붕괴, 특히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의 무책임한 도피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교수는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겉으로만 대통령인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의 수장이었을 뿐이며, 생명의 위협을 느껴 국가의 위기를 방치하고 도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탈레반 집권 시기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20여년이 흘러 아프간 사람들도 변했고, 집권 후 국가재건에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폭압적인 방식의 통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교수는 탈레반의 재집권이 미국의 또 다른 실패를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국제사회가 탈레반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희수 교수는 국제사회가 탈레반을 인정하지 않는 현재 분위기는 곧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유일무이한 집권 능력을 가진 집단이 탈레반이며, 주변국가,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서서히 인정해나가면서 국제사회도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매일 여러 편의 기사를 내보내며 상세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보도

가 대부분이지만, 간혹 상세한 분석, 해설기사를 내보내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특히 16일 오후 3시 뉴스특보에서의 인터뷰는 한국 내 이슬람국가에 대한 권위자인 이희수교수의 다른 기사에서는 접하기 힘든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전해주어서 사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사실상 동일한 질문으로 들릴 수도 있었는데, 이희수 교수가 잘 대답해서 무리가 없었다고 보입니다. 앵커의 질문을 보다 정교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에는 일제를 상대로 한 독립투쟁사의 기념비적 사건인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이 일에 대해 8월 15일에서 17일간 집중 보도했습니다. 15일 오후 11시 <뉴스특보>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송환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광복 76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인 15일 고국에 돌아온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최고등급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고, 이틀간 국민 추모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사는 의장대에 의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운구되는 장면과 문 대통령이 이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 정규군을 대파했고, 이후 연해주로 피신했다가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카자흐스탄에서 말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작년 봉오동 전투 100주년에 맞추어 봉화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1년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지난 8월 18일 오후5시 뉴스특보에서는 이날 거행된 홍범도 장군의 안장식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간략하게 안장식의 진행을 스케치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독립유공자 제 3묘역에 안장됐었는데, 여기에는 청산리 전투의 이화일, 박승길, 김운서 지사 등이 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 기사는 문 대통령 연설의 한 대목을 보여주면서 문 대통령이 연설 도중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홍 장군의 관 위에는 대한민국의 흠과 장군이 묻혀있던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의 흙이 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은 모든 매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보도한, 특히 광복절이라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애국선열들을 기리는 날을 맞아 집중 보도된 사안입니다. 연합뉴스TV도 비중 있게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채널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지상파 뉴스, 종편채널의 뉴스들과의 차별성이 눈에 띄이지 않습니다.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라면 단순히 비슷한 뉴스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관성적인 보도보다는 깊이 있고, 다른 채널에서는 접하기 힘든 심층적인 내용을 발굴해 다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21년 8월 01일 04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1년 8월 8일 04시/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김창숙 시청자평가원 동북아시아대학교 교양교육원</p>	 <p>김창숙 시청자평가원 동북아시아대학교 교양교육원</p>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21년 8월 15일 04시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21년 8월 22일 04시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김홍태 시청자평가원 대한방송시절의 남영익사 / 변호사</p>	 <p>이재원 시청자평가원 이재원 기업-대학원 컨설팅연구소</p>
<p>일시/장면설명</p>	
<p>2021년 8월 29일 04시 / 안호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안호림 시청자평가원 연세대학교 교양대학 교수</p>	